

14. 도장 보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53세 **직종** 도장공 **작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김○○는 50세 때인 2003년 10월 23일부터 2006년 1월 까지 약 2년 3개월간 (주)OO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2005년 1월 H병원에서 폐암을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김○○는 출근하여 먼저 고무통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고 여기에 페인트, 신나, 경화제를 붓고 전동믹서로 믹싱하는 작업을 하였다. 믹싱 작업은 이외에도 수시로 있어 작업시간으로는 하루 3~4시간에 달했다고 한다. 믹싱 작업이 끝나면 상도, 중도의 도장 보조로 철제 박스 외면 도장 작업시에는 우마를 이동해 주는 작업과 박스 내면을 도장할 때는 밖에서 스프레이, 송풍마스크 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작업시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1일 1회씩 필터를 교환하였지만, 가래를 뱉을 때 페인트가 섞여 나오기도 하였다 한다. 작업시에는 일반 모자를 착용하고 부직포로 만든 작업복을 입고 작업 하였다. 청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도로 사용량이 많아 평소 작업장 바닥에는 페인트 분진들이 쌓여 있었다하며, 벽면에 설치된 배기장치 필터에도 두텁게 쌓여 있었다. J병원에서 시행한 2005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도장실에서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크롬, 납, 혼합유기용제,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이소프로필알콜, 크실렌, 톨루엔 측정치는 모두 노출기준 이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김○○는 1974년 군대에서 보병으로 경계근무에 복무하였다. 제대 후 서점업, 술집운영을 하였으며, 32세에 결혼하여 도자기 방문판매 영업을 6년간 하였다. 그 후 노점을 약 3년, 택시운전 수개월 등 여러 일을 하였으며 주로 상업에 종사하였다. 2003년 10월부터는 (주)OO에 입사하여 도장 보조로 일하였다.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 결핵, 천식 등 특이 질환 없었으며, 1999, 2002년에 직장탈출 증상이 있어 수술받았던 병력이 있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하며, 흡연은 21세부터 시작했고 하루 한 갑 정도 피웠으며, 2005년 1월에 금연하여 31갑년에 해당되었다.

4. 결론: 근로자 김OO은,

- ① 폐암(편평상피암)으로 확진되었는데,
- ② 도장 작업 보조로 2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이 기간중 발암가능성이 있는 크롬산납염에 노출되었지만,
- ③ 노출기간이 짧고, 흡연력이 31갑년으로 높아

근로자 김OO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을것으로 판단되었다.